



연변, 개혁 심화로 진흥 발전의 새 국면 열어간다

‘원스톱’ 결재와 ‘타지역 진로’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기본약품은 ‘제로격차’(零差率) 판매를 실시하여 의료개혁 이전보다 가격이 평균 30% 가량 하락했다.

농촌 급수 및 우수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205개 촌에서 착공, 건설되었으며 7억 4,400만 원의 투자를 완성했다.

‘직무기능 전환’, ‘원스톱’(最多跑一次)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업무의 ‘원스톱 접수 통합서비스’를 실현했으며 기업 간이 말소등록 ‘온라인 제로 이동’(网上零跑动)으로 경영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다.

보이는 변화와 느끼고 만질 수 있는 파스함과 행복은 개혁의 추동하에 연변 경제사회발전이 이룩한 크나큰 도약이자 개혁의 전면 심화가 새시대 큰 물결 속에 바친 다채로운 답안지이기도 하다.

길림회승신형재료유한회사의 작업장에서는 선진적인 증압기체공크리트 판재와 블록 생산라인이 자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기지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원로 조제, 배합 재료 주입, 절단성, 증압 유지, 완제품 포장 등 각 고리를 실시간 제어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제품들은 성능이 뛰어난 신형 벽체 재료로 내화·내연, 친환경·환경보호, 흡음·방음, 방수·침수방지, 보온·단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생산공장장 설영홍은 열에너지, 발전 등 공업에서 폐기된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신형의 친환경 건축 재료가 가공하면 오염 제로, 배출 제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변에서 전환 승격을 통해 고 품질 발전에 힘을 축적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기업은 길림회승신형재료유한회사 하나뿐이 아니다.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파악하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코스에 초점을 맞추어 신질생산력 육성, 산업기술 연장과 부가가치 향상에 진력하면서 돌파를 추구함과 더불어 일련의 영향력 있는 업종의 선두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후속 협력 서비스 보장을 착실하게 종합으로 써 내어놓아, 신소재, 신형 에너지 저장, 생물제약 등 ‘5 신산업’ 체계를 전력 구축했다.

일전, 연변 첫진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양실천기지 4개가 가동되었는데 연변의 역사인문과 축색자원에 립각해 부동한 시간과 측면에서 여러 민족의 왕래와 교류와 융합의 역사적 진척, 공동 단결분부와 공동 번영발전의 생동한 실천 및 민족 단결진보사업에서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다.

교양실천기지 건설은 연변 민족단결 진보의 ‘승격판’을 구축하는 중요한 담체의 하나이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변은 ‘5대 공사’를 깊이있게 실시하고 ‘10대 행동’을 다그쳐 추진했으며 ‘1 핵 8익’(一核八翼)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 체험구를 조성하고 30개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합중심을 건설했으며 112개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시범학교를 명명하고 100개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3공 4동’(三共四同) 호감식(互嵌式)

사회구역이 평가와 검수를 통과했다.

아름다운 산천, 푸르른 하늘과 맑은 물은 연변의 진실한 모습이다. 생태의 지속적인 호전세와 ‘왕의 귀환’이 바로 가장 유력한 증거이다. 2021년에 정식 설립된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은 초기에는 동북 호랑이와 표범이 5마리에서 6마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수량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최신 감측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공원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야생 동북호랑이는 70마리가량, 야생 동북표범은 80마리가량에 달한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발전 진보의 동력의 원천이며 더우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진취의 길이다. 최근 들어 연변은 경제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개혁을 총괄 추진함으로써 하나하나의 중대한 개혁 방안이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게 했고 하나하나의 중점 개혁 임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게 했으며 일련의 실무적이고도 혁신적인 개혁의 하이라이트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해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새 연변을 건설하는 데 줄기찬 동력을 투입해 주었다.

도약 추월과 진흥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10대 산업집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체인에 따라 기획하고 선도기업이 이끌고 육성하고 확장하며 집진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 전환 발전을 추진하여 연변의 특색 우세를 갖춘 현대 산업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했다.

림장제, 하호장제, 전장제 등 기계를 구축, 보완하고 푸른 하늘, 푸른 물, 깨끗한 토양, 청산과 초원습지 보위전을 전력에 다해 펼쳐 전 주 생태

환경 품질 검측 데이터가 나온 이래의 가장 좋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도시 공기 우량 비율이 99.2%에 이르렀다.

대외개방 진척을 다그쳐 전 주의 각급 각류 개발구(변경협력구)를 12개로 최적화, 통합하고 훈춘수출가공구를 국중합보세구로 승격시켰으며 훈춘국제공항이 현관 제막과 함께 운영되고 연길공항보세물류센터(B형)가 봉관(封关) 운영되었다.

두만강지역의 합작개발 진척을 다그쳐 훈춘해양경제발전시범구, 길림연길-장백중점개발개방시범구를 설립하여 대외개방 플랫폼의 동력 급별(能级)이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 발전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려일었다.

농촌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미등록토지’(册外地) 유상 사용과 택지 활성화 리용 정책을 추진하여 농촌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리용했다.

전 성적으로 먼저 총의사 대외 건설 제도를 가동하여 행정촌 위생실 표준화 건설의 전체 포괄을 실현했다.

고수준의 개혁을 초지일관 심화하여 고품질 발전의 거센 동력을 불려일었다. 하나 또 하나의 해민정책은 민의에 부합되고 민심을 따뜻하게 했으며 민중의 근심을 덜어주어 대중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개혁의 혜택을 향수하게 했다.

오늘날 연변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사업이 장족의 발전을 실현했으며 민족단결진보 건설이 격상되었다...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 또한 뚜렷이 증강되었다. / 길림일보

사격 장경월 올림픽 동메달 획득

우리 성 선수가 이번 빠리올림픽에서 획득한 첫 메달



8월 2일(북경시간)에 이른 빠리올림픽 사격 여자 50미터 소총 3자세 결승에서 우리 성 선수 장경월이 동메달을 따냈다. 이는 우리 성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획득한 첫 메달이다.

전날에 있던 자격 경기에서 장경월은 593점을 쏘아 미국의 마달레나와 나란히 1위로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무릎쓰기(跪射)와 엃드려쓰기(卧射)를 먼저 3개 조 각 5발씩 쏘고 그 다음 2개 조 각 5발씩 서서쓰기(立射)를 하며 이어서 5발의 단발 탈락단계에 들어간다.

결승전 3개 조 무릎쓰기가 계속된 후 장경월은 156.0점으로 앞 두 선수에 비해 0.2점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진행된 엃드려쓰기에서 장경월은 레온(스위스)을 추월했지만 마달레나에 0.7점 뒤지며 2위에 머물렀다. 서서쓰기에서는 40발을 마친 후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 길림일보

그후의 단발 승자전에서 장경월은 연속 비교적 낮은 점수를 쏘면서 레온과 마달레나에게 추월당했다. 승자전 제 4발에서 장경월은 9.7점을 쏘아 마달레나와 함께 2위를 차지했으나 슛오프(加枪)에서 밀리면서 동메달을 따. 레온은 마지막 한발에서 10.8점을 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미국의 마달레나가 은메달을 따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장경월은 《길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수확이 아주 많다. 이런 종합적인 대형 운동회에 참가한 선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대회에서 값진 경험을 했다. 집에서 훈련할 때 경기장과 같은 분위기를 미리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팀이 잘 보장해주어 빠리올림픽에 와서도 긴장감 없이 심리 상태가 비교적 편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의 발취에 대해 얘기하면서 장경월은 경기중 자신의 주의력은 줄곧 표적에만 있었고 상대방의 점수나 자신의 순위에 대해 전혀 관심하지 않았으며 오직 매 한발을 착실하게 쏘고 매번의 격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경월은 “처음 올림픽에 참가하는 기분은 정말 벅찼고 처음은 또 올림픽 메달은 나에게 있어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 길림일보

제 23 회 장춘농업박람회 8월 16일 개막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전시 방식 실행



▲ 제 22 회 장춘농업박람회 행사 장면 (자료사진)

8월 2일, 제 23 회 중국장춘국제 농업·식품박람회(교역)회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번 농업박람회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 장춘농업박람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과학기술혁신, 친환경발전, 교류협력’을 주제로, “국가 향촌진흥전략과 길림성 ‘3농’의 발전 성과를 선전하고 시범첨단과학기술 성과를 전시하며 농업의 신질생산력을 선도하고 농업 협력교류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전시 방식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5대 새로운 특색을 나타낸다. 투자유치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농업 우수 전시회를 개최하고 경제무역협력을 향상시키며 전문농업전시회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기계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선진적인 지능형 농기계 전문구역의 만들고 농업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신질생산력의 농업 본보기를 구축하며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데이터 경제

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어 ‘시범선도, 지혜전시, 경제무역교류, 문화해민, 관광객제’의 전문적인 농업 전시와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시 기간 오프라인 전시구역은 기능에 따라 ‘제품전시판매, 생산시범, 과학연구와 교육실천활동, 경제무역교류, 포럼회의, 경기활동’ 등 6대 분야의 39개 내용을 진행하고 국내 정품농업, 장춘시 브랜드농업, 식품가공기계 및 차문화, 지능기계 장비, 레저관광농업, 정품축산, 고신시설농업, 관동(길림)농경민속문화 등 전시관을 설치한다.

전시회는 또 전국 100개 기업의 길림 진출 활동 및 ‘길자호(吉字号)’ 농산물 구매상권 연결 활동, 특색 있는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를 위한 전시 및 보급 활동, 제 1회 길우 중국산 음식축제, 장춘시 농업 투자유치 추진소개회 등 계열 활동 등 향촌 진흥 발전을 둘러싼 여러 포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 오건기자

연길공항 지난 7개월간 려객운송량 연 106만명 초과

연길공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연길공항에 리차륙한 항공편은 8,145회, 려객운송량은 연 106만 7,639명, 화물운송량은 1,754.8톤으로 2019년 의 105.2%, 113.5%, 57%로 회복되었다.

그중 국내 항공편은 5,179회 리차륙하고 연 65만 2,643명의 국내 려객을 운송해 2019년의 102.9%, 119.5%로 회복되었다. 국제항공편은 2,966회 리차륙하고 연 41만 4,996명의 국

제 려객을 운송해 2019년의 109.4%, 105.2%로 회복되었다.

7월 한달간 연길공항은 1,320회의 항공기 리차륙, 려객운송량 연 19만 1,274명, 화물운송량 245.1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의 105.9%, 119.7%, 61.1%로 회복된 수준이다. 그중 국내 항공편은 752회 리차륙하고 연 10만 3,171명의 국내 려객을 운송해 2019년의 90.4%, 106.2%로 회복되었다. 국제항공편은 568회

리차륙하고 연 8만 8,103명의 국제 려객을 운송해 2019년의 137.2%, 140.7%로 회복되었다. 여름방학 관광 시즌에 비춰 연길공항은 여러 항공사와 적극 협력해 항로 개통, 항공편 추가 운행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동 수요를 일층 보장했다.

올 들어 연길공항은 연길=유방=장사, 연길=은주, 연길=위해=남경 등 항로를 새로 개통하면서 중남지역

항로 공백을 메우고 동시에 관광, 상업무역, 산업 왕래에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연길과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성도, 항주 등 도시를 잇는 국내 항공편은 물론 부산, 청주, 서울, 대구로 향하는 국제항공편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그중 북경, 상해, 심수, 청도, 대련 등 도시에서 연길로 운행되는 항공편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 연변일보

길림성 시간대 전기가격 조정! 10월 1일부터 실시!

일전,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는 <시간대 전기가격 정책을 최적화할 데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공상업 전기사용자의 고봉기 8시간, 평시 8시간, 저조기 8시간 등 시간대 전기가격을 조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봉곡시간대 전기가격’(峰谷分时电价)은 고봉기 전기 사용과 저조기 전기 사용에 따라 각각 가격을 계산하는 일종의 전기가격 제도로 각 시간대에 대해 각각 다른 전

기가격 수준을 제정함으로써 전기 사용 고객이 전기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도록 장려하고 전력 자원의 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고봉시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고봉기(총 8시간): 9:00-11:30, 15:30-21:00이다. 그중 고봉시간대 1월, 7월-8월, 11-12월은 16:00-19:00(총 3시간).

평시시간대(총 8시간): 6:00-9:00, 11:30-12:30, 13:30-15:30, 21:00-23:00.

저조기시간대(총 8시간): 23:00-6:00, 12:30-13:30.

전기가격은 어떻게 조정하나?

평상시 전기가격은 시장 거래 전력 구매 가격 또는 전력망 대리 전력 구매 평균 인터넷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고봉기와 저조기 시간대의 전기 사용 가격은 평상시 전기가격의 기초에서 각각 상하 55% 변동한다.

최고봉시간대의 전기 사용 가격은 고봉기시간대의 전기가격에 기초하여 25% 상승한다.

정부성 자금 및 부가와 시스템 운영 비용은 변동이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과 전기난방 사용자는 원 규정을 집행하고 잠시 조정하지 않는다. / 길림일보



돈화시 안명호진은 천혜의 자연 자원 우세와 우월한 지리적 위치에 의거하여 민박 등 농촌관광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정품 관광 코스를 개발하며 관광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독특한 농촌관광 목적지를 만들어 당지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안명호진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 / 리광우